

新 도시 풍경화와의 랑데부

박옥생

김보민은 동양화의 먹선을 라인 테이프로 표현하는 작가로, 동양화의 새로운 표현에 있어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그의 신작 <표류기>에는 일상성과 같은 시각적 폭을 궁중기록화의 다큐멘터리적 시선과 지도의 지리학적 시선으로 구성한 화면을 선보인다. 서울의 풍경으로 일관된 화면은 서울의 주요한 곳들이 간결하게 고지도의 시점과 구성을 차용하여 구조화 되고 있다. 조선후기의 천문, 과학, 지리에 있어 실용적이며 과학적인 문화의 유행은 우리 땅에 관하여 눈을 뜨게 하였다. 이는 검재 정선의 진경산수화나 지도의 유행과 같은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관념적, 사의(寫意)적인 중국풍의 산수화의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실경을 보고 그린다는 진경의 성행은 조선 땅에 관하여 새롭고 긍정적인 사고관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지도는 한층 발전된 우리 땅에 관한 관심과 사랑이었다.

서울의 공간을 지도식으로 연출한 화면은 작가가 조선후기의 우리 땅과 역사에 관한 따뜻한 시선과 사고체계의 일정한 영향 아래에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검재가 경기일대의 명승지들을 그렸듯이 작가가 <가회도(2009)>, <삼청도(2008)>와 작품을 그리면서 현대 현대사 옥이나 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실재 형상들을 재현해 내고 있다. 우리는 그의 작품에서 근경에서 중경, 원경으로 시선의 순차적 이동을 따라 실재와 허구가 공존하는 지리적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각각의 건축물로 대표되는 공간에는 우리의 경험이 축적된 추억들을 선회하게 되는데, 그들은 우리들이 경험한 추억들을 잡아둔다. 김보민의 장엄하게 구성된 화면에는 구름, 태점과 같은 필묵법과, 양감이 풍부한 토파(土坡)의 동양화의 필법으로 운용된 자연을 볼 수 있다. 산수는 동양화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면 현대 도시의 물질적이며 모던한 사회상을 반증해 주는 밀집한 빌딩들은 그의 독특한 매체인 라인 테이프의 선명하고 구축적인 선들로 견고하게 규정하고 있다. 화면의 이러한 상반된 기법과 조형들을 통하여 우리는 과거와의 대화를 시도하게 된다.

그동안 작가는 검재의 패러디를 통해 고전의 차용, 변용으로 전통과 현대, 허구와 실재가 융합된 풍경을 연출해 왔다. 현재 서울이 조선의 한 풍경 안으로 들어간 것 같기도 하며, 조선의 풍경이 지그의 서울로 날아온 듯 오랜 역사성 속에 스며든 선조들의 숨결과 같은 축적된 시간의 궤적들을 허구적으로 보여준다. 작가의 화면에 전통성이 동시에 구성되는 것은 작가의 탄탄한 미술사적 연구가 바탕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전의 연구 성과들은 넓은 시야의 확보와 풍부한 시각적 구성, 깊은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해 좌표와 같은 지도를 운용함에 있어 작가 자신이 '실재'를 반추하게 되며, 이 새로운 도시 풍경화 앞에서 우리는 지금의 '나'에 관한 진지한 성찰의 대면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존재와 자아의 표류기 일 수도 새로운 자연으로 대두된 도시의 삶을 반추하는 표류기 일 수도 있다.